

제 1 교시

언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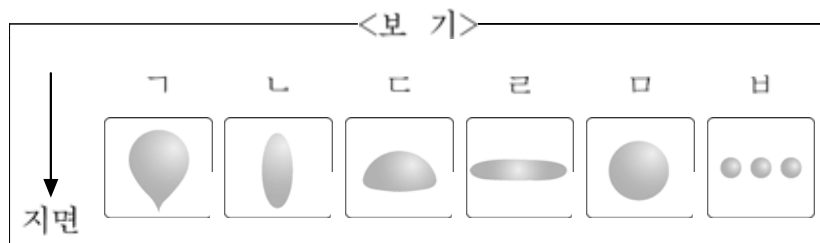
성명  수험 번호

홀수형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교사가 설명한 빗방울의 모양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1점]



- ① 가 → 다 → 라 → 바
- ② 가 → 마 → 나 → 바
- ③ 마 → 나 → 가 → 바
- ④ 마 → 나 → 라 → 바
- ⑤ 마 → 다 → 라 → 바

2. (물음) 방송에서 소개하는 인물에 대해 청취자가 평가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능이 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자존심도 잃지 않고 살았군.
- ② 통념과 관습을 거부하는 독특한 연주법으로 후대 예술가의 본이 되었군.
- ③ 자기 수양을 통해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여 예술가로서 일가를 이루었군.
- ④ 부단한 정진을 통해 부족한 재능을 뛰어넘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군.
- 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과 결별하고 세상을 조롱하며 살았군.

3. (물음) 대화에서 여학생의 마지막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년 왜 ( )

- ① 관련이 없는 것을 끌어다 말하니?
- ② 남의 말이 다 옳은 것처럼 말하니?
- ③ 사람에게 대한 편견을 가지고 말하니?
- ④ 다른 사람의 생각을 확대해서 말하니?
- ⑤ 메시지를 부정적으로만 판단해서 말하니?

4. (물음) 발표자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둘째 자리			● ●	● ● ●
첫째 자리		● ●	≡	≡

- ① 60
- ② 75
- ③ 80
- ④ 85
- ⑤ 90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이 좌담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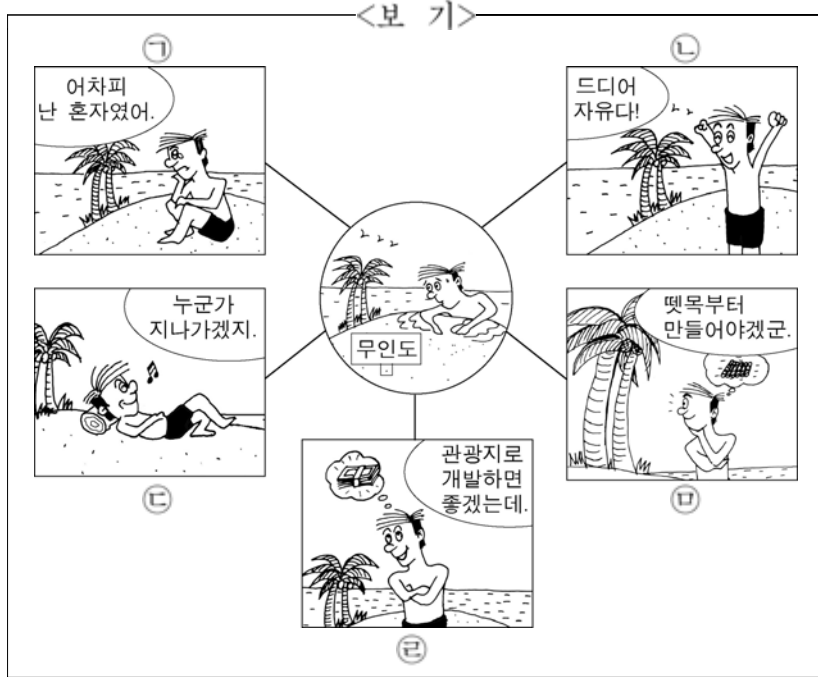
- ① 협약의 의의
- ② 협약의 채택 배경
- ③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전망
- ④ 협약에 규정된 분쟁 조정 절차
- ⑤ 협약이 우리 문화 산업에 미칠 영향

6. (물음) 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권위자의 이론에 기대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③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상대방에게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여 쟁점을 부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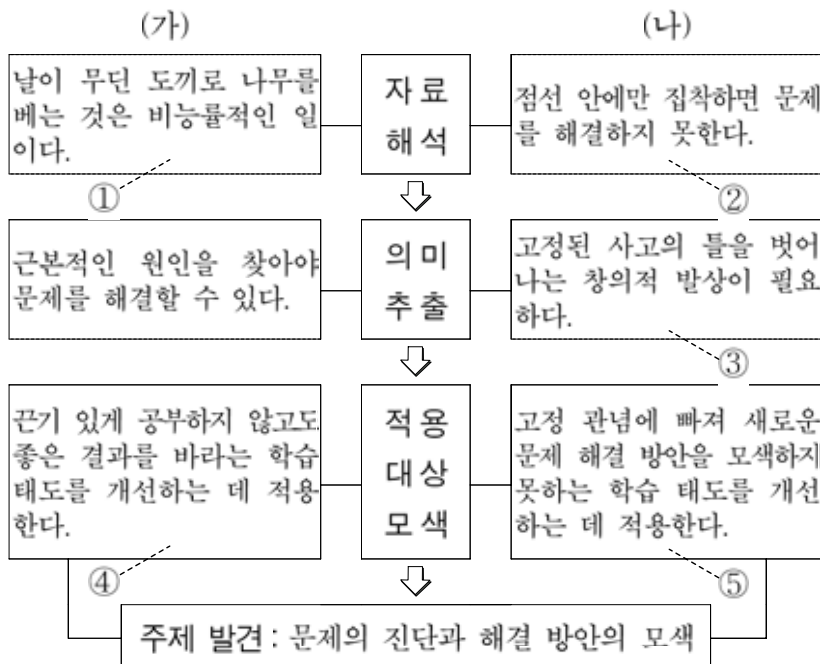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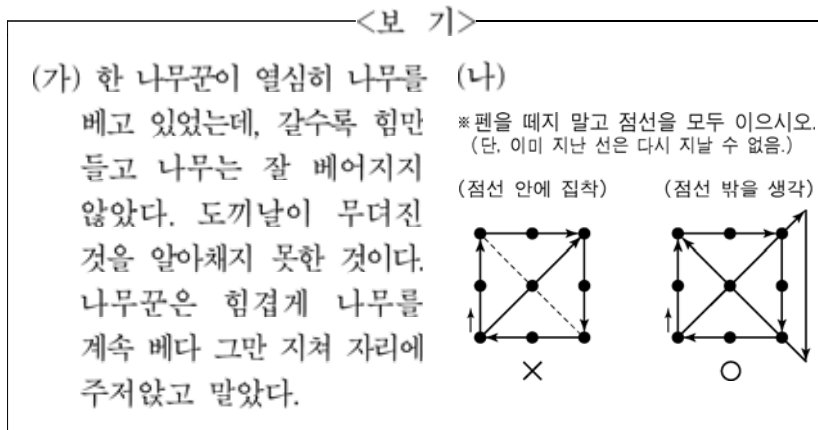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보기>를 활용하여 '현대인의 삶'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현대인은 소통의 단절을 겪으며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
- ② ㉡: 현대인은 일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 ③ ㉢: 현대인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한다.
- ④ ㉣: 현대인은 자연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⑤ ㉤: 현대인은 적극적인 자세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8.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능률적인 학습 방법 모색'에 대한 글쓰기 계획을 구상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9. <보기>와 같이 '해외 한국학 육성 방안'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 수정 방안이나 자료 제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I. 서론**

- 한국학 강좌를 대학에 개설한 국가 수의 증가 .....㉠
- 해외 한국학 육성을 위한 장기적 전략의 필요성

**II. 본론**

1. 해외 한국학 육성의 의의
  -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 학문적 연대 증진 .....㉡
  - 세계 속의 한국 위상 제고
2. 해외 한국학 발전의 장애 요소
  -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연구 재정 지원 부족
  - 한국학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 부족 .....㉢
  - 한국학을 연구할 전문 인력의 부족
3. 해외 한국학 지원 및 육성 방안
  - 연구 재정의 투명한 관리 ....㉣
  - 한국학 국제 학술 대회 개최 등을 통한 관심 환기
  - \_\_\_\_\_ ㉤ \_\_\_\_\_

**III. 결론**

- 해외 한국학의 전망

- ㉠: 한국학 강좌를 개설한 한국 대학들의 정확한 실태를 통계 수치로 제시한다.
- ㉡: 각국의 문화재 보존 현황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 ㉢: 한국학에 대한 인지도가 일본학, 중국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 ㉣: 'II-2'를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 확대 및 민간 기업의 기부 활성화'로 수정한다.
- ㉤: 글은 현경성을 고려하여 '한국학 연구자 육성을 위한 장학 제도 마련'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독서'와 관련한 표어를 쓰려고 한다. <보기 1>의 관점과 <보기 2>의 표현법을 모두 살린 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기 1>

"트집을 잡거나 반박하려고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믿거나 그대로 인정할 생각으로 읽어서도 안 된다. 이야깃거리나 설교 자료를 구하려고 읽지도 마라. 다만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기 위해 읽어야 한다."  
- 베이컨 -

<보기 2>

○ 보고 지고 보고 지고  
○ 새가 울고 꽃이 핀다.

- ① 책 속에서 나를 찾고 책 속에서 지혜 얻자
- ② 책 속의 선인 지혜 계승하여 나를 찾자
- ③ 바다같이 넓은 독서 깊어지는 나의 지혜
- ④ 행복 주는 책임기가 행복 사회 가져온다
- ⑤ 읽고 읽어 바로 알자 세상의 옳고 그름

11. '탈춤'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한다. 제작 계획서 내용 중, <보기>의 제작 회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 목: 탈춤 체험의 기록임을 드러낼 것.
  - 주 대상층: 탈춤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를 예상 시청자로 함.
  - 내 용: 실제 경험을 통해 탈춤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여 주면서, 탈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것.
  - 구성 방식: 간단한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할 것.
  - 전달 방식: 정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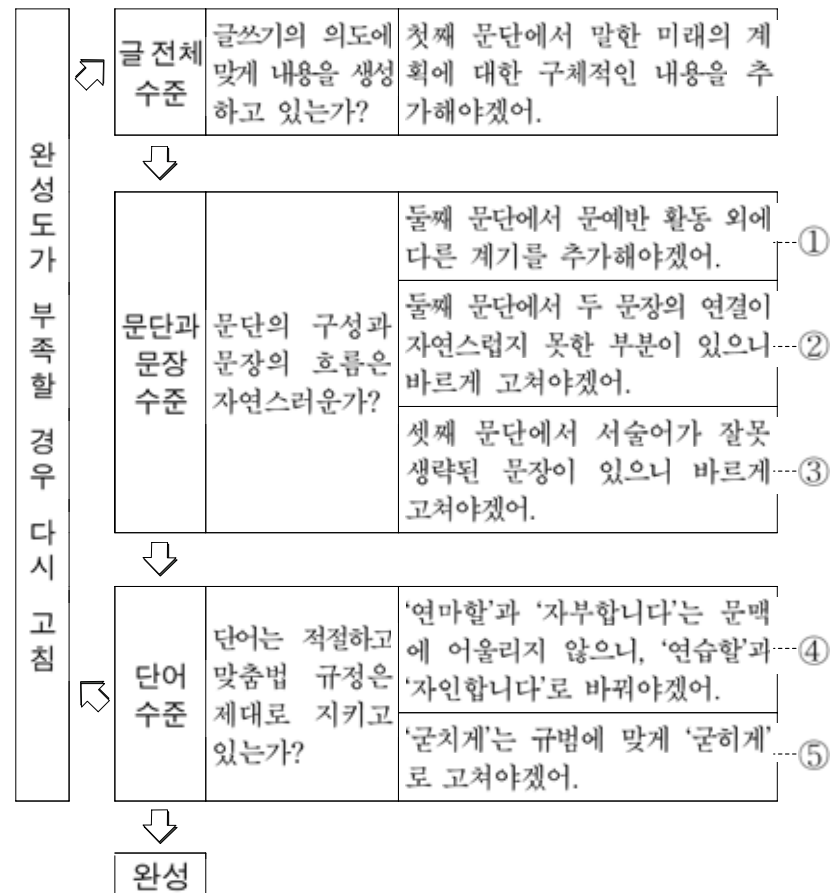
<영상물 제작 계획서>		
제 목	'기획 특집-탈춤 속으로 떠나는 10일간의 여행'	①
제작 의도	- 젊은 세대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 유산인 탈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킨다.	②
전체 일개 구성	중심 - 대학생이 우리 문화 체험을 위해 탈춤이 전승되는 마을로 가는 상황을 설정한다.	③
	보조 - 탈춤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여 마지막 날에 공연으로 마무리한다는 줄거리로 구성한다.	
전달 방식	해설 - 내레이션을 통해 탈춤에 대한 학술적 이견들을 깊이 있게 제시하여 탈춤에 조예가 깊은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한다.	④
	영상 편집 - 탈에 대한 정보를 시각 자료로 제시한다. - 탈춤의 종류,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그래픽 자료를 보여 준다. - 탈춤의 연습과 공연 장면을 현장감 있게 보여 준다.	⑤

12. 고쳐 쓰기의 절차에 따라 '자기 소개서' 초고를 다듬으려고 한다. 고쳐 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우리말과 글에 대한 관심도 컸고,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 왔으며,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 국문학과에서 제 소질과 능력을 연마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국어 국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3년 동안 문예반 활동을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문학 작품을 읽고 제 자신이 직접 창작도 해 보면서 우리 문학의 우수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국어 국문학 공부를 위해서는 우리말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도 잘 알아야 하고, 우리글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 분야에 대한 교양서적들을 널리 읽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국어 국문학에 대해 깊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게 된다면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13. <보기 1>과 같은 표준어 규정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오뚝이(x) → 오뚝이(○), 쌍둥이(x) → 쌍둥이(○) 등.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부조(扶助)	부주	~돈, ~금
사돈(査頓)	사둔	발~, 안~
삼촌(三寸)	삼춘	외~, 처~

- <보기 2>
- ㉠ 그 아이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며 어쩔 줄 몰라 했다.
  - ㉡ 내가 그 애와 똑같다며 쌍둥이가 아니냐고 묻곤 했다.
  - ㉢ 어릴 때부터 삼촌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 ① ㉠의 '깡충깡충'을 '깡충깡충' 대신 표준어로 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겠군.
- ② ㉡의 '쌍둥이'를 보니 '막둥이'나 '흰둥이'도 예전에는 '막동이', '흰동이'였겠군.
- ③ ㉢의 '삼촌' 대신 '삼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원을 고려하여 '삼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군.
- ④ ㉠의 '깡충깡충'과 ㉢의 '삼촌'은 둘 다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⑤ 대다수 언중들의 발음 습관이 달라져 굳어지면, 그 어휘들의 표준어형도 달라질 수 있겠군.

14.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빈칸을 채울 때,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3점]

<보기 1>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뛰었다.”에서 ‘뛰다’의 반의어는 ‘걸다’이지만 “물가(物價)가 뛰었다.”에서는 ‘떨어지다’가 된다.

<보기 2>

단어	예 문	반의어
서다	버스에 자리가 없어서 한참 동안 서서 왔다.	↔ 앉다
	고장이 나서 시계가 서 버렸다.	↔ [ A ]
	[ B ]	↔ 깎이다
	기강이 서야 사회가 안정된다.	↔ [ C ]

- |      |                    |      |
|------|--------------------|------|
| [A]  | [B]                | [C]  |
| ① 가다 | 가족에게 위신이 서서 기뻐다.   | 내리다  |
| ② 가다 | 토끼의 귀가 쫑긋 섰다.      | 내리다  |
| ③ 가다 | 회장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았다.  | 무너지다 |
| ④ 죽다 | 바지의 주름이 잘 섰다.      | 무너지다 |
| ⑤ 죽다 | 친구와 같은 입장에 서서 말했다. | 벗어나다 |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킨\*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불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얗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 삼킨: 삼긴. 물에 삶아 우려냄.  
\*\* 덩그럭 불: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착하다: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책력: 달력.

(나)

㉠ 산야. 우뚝 솟은 푸른 산야.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야. 슬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 동 동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삐꾸기.....

㉢ 산야. 푸른 산야.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 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이른 이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띄어 올 맑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을, 총총 달려도 와 줄 ㉤ 불이 고운 나의 사람.

㉥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

(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④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를 통해 생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16. <보기>와 같이 학습 과제를 수행한 후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 이 시의 창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다.
  - 일제 말기인 1941년에 발행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백옥담』에 실린 작품. 이 무렵 정지용은 서울에 살고 있었음.
2.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 인동차(忍冬茶)는 한약재로도 쓰이는 인동의 줄기인 잎사귀를 말려 달여 먹는 차. 인동은 인동과의 반(半) 상록 덩굴성 식물. 인동에는 '겨울을 참고 견디다'는 뜻이 있음.
3.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조사한다.
  - 장벽 :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
  - 무시로 : 아무 때나.
4.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 시상 전개 : .....
  - 이미지 : .....
  - 특이한 표현 : .....

- ①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
- ② '장벽에/무시로 인동 삼킨 물이 나린다.'는 구절은 '차를 마신다'는 평범한 사실을 낯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 같아.
- ③ '덩그럭 불이/도로 피어 불고'라는 표현에서 실내의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
- ④ '책력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하얗다'를 '하이얗다'라고 표현한 것은 언어 규범에 어긋나지만, 정감의 깊이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17. (나)의 ㉠와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초월적 존재이다.
- ② ㉠와 ㉡는 모두 화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정적 존재이다.
- ③ ㉠는 화자로 하여금 과거를 잊게 해 주는 존재이고, ㉡는 화자와 반목하는 존재이다.
- ④ ㉠는 현실의 모순을 심화하는 존재이고, ㉡는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 주는 존재이다.
- ⑤ ㉠는 화자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줄 존재이고, ㉡는 화자의 방황을 유발하는 존재이다.

18. (나)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1점]

<보 기>

원시 시대의 인간은 주술적(呪術的) 언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였다. 박두진의 「청산도」에는 이러한 주술적 언어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 시어를 반복·변용하는 것,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다)의 특징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려고 한다. 창작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작품 중간에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을 넣는다.
- ② 냉소적 어조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 ③ 마지막 행을 명사로 끝맺어 여운을 준다.
- ④ 조사와 구두점을 적절히 생략한다.
- ⑤ 계절감을 주는 소재를 활용한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의 발명가 루돌프 디젤이 새로운 엔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를 얻은 것은 1892년의 일이었다. 1876년 오토가 발명한 가솔린 엔진의 효율은 당시에 무척 떨어졌으며, 널리 사용된 증기 기관의 효율 역시 10%에 불과했고, 가동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디젤의 목표는 고효율의 엔진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의 아이디어는 훨씬 더 높은 압축 비율로 연료를 연소시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은 기화기에서 공기와 연료를 먼저 혼합하고, 그 혼합 기체를 실린더 안으로 흡입하여 압축한 후, 점화 플러그로 스파크를 일으켜 동력을 얻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는 압축 정도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만일 기화된 가솔린에 너무 큰 압력을 가하면 멋대로 점화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엔진의 노킹 현상이다.

공기를 압축하면 뜨거워진다는 것은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 디젤 엔진의 기본 원리는 실린더 안으로 공기만을 흡입하여 피스톤으로 강하게 압축시킨 다음, 그 압축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저절로 착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젤 엔진에는 점화 플러그가 필요 없는 대신, 연료 분사기가 장착되어 있다. 또 압축 과정에서 공기와 연료가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디젤 엔진은, 최대 12:1의 압축 비율을 갖는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더 높은 25:1 정도의 압축 비율을 갖는다. 압축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하는 연료의 특성도 다르다. 디젤 연료인 경유는 가솔린보다 훨씬 무겁고 점성이 강하며 증발하는 속도도 느리다. 왜냐하면 경유는 가솔린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 원자가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솔린은 5~10개, 경유는 16~20개의 탄소를 가진 탄화수소들의 혼합물이다. 탄소가 많이 연결된 탄화수소물에 고온의 열을 가하면 탄소 수가 적은 탄화수소물로 분해된다. 한편, 경유는 가솔린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 1갤런의 경유는 약 1억 5,500만 줄(Joule)\*\*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솔린은 1억 3,200만 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료의 특성들이 디젤 엔진의 높은 효율과 결합되면서,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좋은 연비를 내게 되는 것이다.

발명가 디젤은 디젤 엔진이 작고 경제적인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전에는 크고 육중한 것만 만들어졌다. 하지만 ㉠ 그 후 디젤의 기술적 유산은 이 발명가가 꿈꾼 대로 널리 보급되었다. 디젤 엔진은 원리상 가솔린 엔진보다 더 튼튼하고 고장도 덜 난다. 디젤 엔진은 연료의 품질에 민감하지 않고 연료의 소비 면에서도 경제성이 뛰어나 오늘날 자동차 엔진용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환경론자들이 걱정하는 디젤 엔진의 분진 배출 문제도 필터 기술이 나아지면서 점차 극복되고 있다.

\* 노킹 현상: 실린더 안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폭발.  
\*\* 줄: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먼저 개발되었다.
- ②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 ③ 가솔린 엔진은 디젤 엔진보다 분진을 많이 배출한다.
- ④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연료의 품질에 민감하다.
- ⑤ 가솔린 엔진은 디젤 엔진보다 높은 압축 비율을 가진다.

21. <보기>에서 디젤 엔진에 없는 부품끼리 묶은 것은?

<보 기>

ㄱ. 기화기	ㄴ. 피스톤	ㄷ. 점화 플러그
ㄹ. 실린더	ㅁ. 연료 분사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22. [A]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손으로 만지면 경유보다는 가솔린이 더 끈적끈적할 거야.
- ② 가솔린과 경유를 섞으면 가솔린이 경유 아래로 가라앉을 거야.
- ③ 특별한 공정을 거치면 경유를 가솔린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 ④ 주유할 때 차체에 연료가 묻으면 경유가 가솔린보다 더 빨리 증발할 거야.
- ⑤ 같은 양의 연료를 태우면 가솔린이 경유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발생시킬 거야.

23. ㉠의 이유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문맥상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디젤 엔진 제작 기술이 (    )되어 보다 작고 경제적인 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 ① 개조(改造)      ② 개선(改善)      ③ 진보(進歩)
- ④ 향상(向上)      ⑤ 발전(發展)

[24~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	霜天月照夜河明
나그네는 돌아가고픈 심정이 간절해지네	客子思歸別有情
진진 밤 근심에 겨워 오래 앉았노라니	厭坐長宵愁欲死
홀연 들리는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	忽聞隣女擣衣聲
바람에 실려 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聲來斷續因風至
밤 깊고 별이 낮도록 잠시도 멈추지 않네	夜久星低無暫止
고국을 떠난 뒤로는 듣지를 못하였건만	自從別國不相聞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 서로 비슷하네	今在他鄉聽相似

- 양태사,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

(나)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겨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어와 너여이고 나의 사설 들어 보오  
 ㉠ 내 얼굴 이 거동이 임 괴암즉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네로다 여기실새  
 ㉡ 나도 입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지  
 ㉢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헤아리니  
 ㉣ 내 몸의 지은 죄 죄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라  
 ㉤ 설위 풀쳐 헤니 조물의 탓이로다  
 글란 생각 마오 뻗힌 일이 있어이다  
 입을 뵈서 있어 임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고  
 춘한(春寒) 고열(苦熱)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뒤라서 뵈셨는고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다)

그날 황혼 천하에 공지(空地) 없음을 한탄하며 뉘 집 이층에서 저물어 가는 도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실로 덕수궁 연못 같은, 날만 따뜻해지면 제 출몰에 해소될 영성한 공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참 ㉠ 훌륭한 공지를 하나 발견하였다.  
 ○○보험회사 신축 용지라고 대서특서한 높다란 판장(板牆)으로 둘러막은 목산(目算)\* 범 천 평 이상의 ㉡ 명실상부의 공지가 아닌가.

잡초가 우거졌다가 우거진 채 말라서 일면이 세피아 빛으로 덮인 실로 ㉔ 황량한 공지인 것이다. 입추의 여지가 가히 없는 이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인외경(人外境)의 감을 **풍기는** 적지 않은 공지가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닐 수 없다.

인마(人馬)의 발자취가 끊인 지—아니 그건 또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지만—오랜 이 공지에는 강아지가 서너 마리 모여 석양의 그림자를 끌고 회롱한다. 정말 공지—참말이지 이 세상에는 인제는 공지라고는 없다. 아스팔트를 잔 편질한 길도 공지가 아니다. 질펀한 논밭, 임야, 석산, 다 아무개의 소유답이요, 아무개 소유의 산갯\*\*이요, 아무개 소유의 광산인 것이다. 생각하면 들에 나는 풀 한 포기나 공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치대로 하자면 우리는 소유자의 허락이 없이 일 보의 반 보를 어찌 옮겨 놓으리오. 오늘 우리가 제법 교외로 산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세상 인심이 좋아서 모두들 묵허(默許)를 해 주니까 향유할 수 있는 사치다. 하나도 공지가 없는 이 세상에 어디로 갈까 하던 차에 이런 ㉕ 공지다운 공지를 발견하고 저기 가서 두 다리 쪽 뺄고 누워서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보험회사가 이윤을 기다리고 있는 건조물인 것을 깨달았다. 다만 이 건조물은 콘크리트로 여러 층을 쌓아 올린 것과 달라 잡초가 우거진 형태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봄이 왔다. 가난한 방안에 왜꼬아리 분(盆) 하나가 철을 찾아서 요리조리 싹이 튼다. 그 닷굽 한 되도 [B] 안 되는 흙 위에다가 늘 잉크병을 올려놓고 하다가 싹트는 것을 보고 잉크병을 치우고 겨우내 그대로 두었던 낙엽을 거두고 맑은 물을 한 주발 주었다. 그리고 천하에 공지라곤 요 분 안에 놓인 땅 한 군데밖에는 없다고 좋아하였다. 그러나 두 다리를 뺄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기에는 이 ㉖ 동글납작한 공지는 너무 좁다.

- 이상, 「조춘점묘(早春點描)」 -

\* 목산: 눈으로 어림셈함.  
\*\* 산갯: 산갯. 산림의 의미.

2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환상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④ 바라는 공간에 있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연물에 빗대어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25. (가)의 시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달'과 '은하수'는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이다.
  - ② '다듬이 소리'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 ③ '바람'은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④ '별이 낮도록'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보여 준다.
  - ⑤ '서로 비슷하네'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중첩됨을 드러낸다.

26. (나)를 상소문이라고 가정할 때, (나)의 ㉑~㉕ 중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1점]

<보 기>

상소문은 여러 경우에 쓰는데, 그 중에는 개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도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전말을 밝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해명하거나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탓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금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였다.

-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㉕

2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B]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 있다.
  - ② [A], [B] 모두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A], [B] 모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가 드러나 있다.
  - ④ [A]에는 공간적인 이동이, [B]에는 시간적인 경과가 나타나 있다.
  - ⑤ [A]는 반어적인 표현을, [B]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28. <보기>를 통해 (다)의 화자의 심리를 미루어 짐작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현대인이 신경증을 앓는 까닭은 자신이 만들어 낸 바로 그 문명 때문일 것이다.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욕망의 창고에는 오히려 빈 구석만 더욱 늘어 간다. 그리고 그 빈 구석을 메우고 타오르는 것은 울화의 불길이다.

- ① 도시적 삶이 주는 화려함에 이끌려 해매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② 전통적 가치가 배척되는 근대 사회를 보고 비애감을 느끼고 있다.
- ③ 식민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상실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다.
- ④ 도시 문명에서 도피하여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고 있다.
- ⑤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쌓여 있다.

29. (다)의 ㉑~㉕ 중, 같은 장소를 가리키지 않는 것은? [1점]
-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㉕

30. (다)의 '풍기는'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키로 까불러서 검불을 풍기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 ② 이국의 정취가 풍기는 아름다운 거리를 한없이 걸어갔다.
  - ③ 진한 향기를 풍기는 붉은 해당화가 마음을 설레게 했다.
  - ④ 총소리가 풀숲에 숨어 있던 새들을 풍겼다.
  - ⑤ 시골 길로 버스가 지나가자 먼지가 풍겼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피테는 젊은 시절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면서 “나의 조국을 알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노라.” 하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어를 통해서 한국어에 없는 문법 장치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언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때로는 한국어의 고유성에 대한 재확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나) “철수가 축구를 하였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문장으로는 화자가 ‘철수가 축구를 한 것’을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들었는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콜롬비아의 토속어인 투유카 어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장치가 있다. 화자의 목격 여부가 동시에 형태적으로 표시되는데 그것을 ㉠ ‘증거법’이라고 부른다.

- dīga apéwi (그가 축구를 한 것을 내가 보았다.)
- dīga apéti (그가 축구를 한 것을 내가 소문은 들었지만 보지 못했다.)
- dīga apéyi (그가 축구를 한 것을 내가 알지만 보지는 못했다.)
- dīga apéyigi (그가 축구를 한 것을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 dīga apéhiyi (그가 축구를 한 것을 나는 짐작했다.)

○ 증거법의 구성 요소 = {wi=시각적, ti=비시각적, yi=명백함, yigi=전해 들음, hiyi=짐작함}

(다) 위 예문들의 공통 의미는 ‘그가 축구를 하였다’이다. 그런데 투유카 어의 문장으로 이 의미만을 표현할 수는 없다. 투유카 어는 증거법의 형태들이 문장에 필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어에는 증거법이라는 문법 범주가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한국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법 형태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단어나 문장 등 다른 차원의 언어적 장치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어로 사실을 표현하는 방식과 투유카 어의 그것이 다름을 보여 준다.

(라) 그러면 한국어는 어떠한가? 한국어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은 ㉡ ‘높임법’이다.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말에는 ‘화자가 청자를 높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 있다. 한국어 화자들이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묵시적인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당신은 청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듣는 사람을 높입니까? 아니면 높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만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높임법을 보편적인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외국어는 자국어보다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언어 간의 대조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사고 방식을 돌아켜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투유카 어의 증거법을 이해한 한국인들은 문장 속 동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산업화의 정도나 사용 인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름

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토착민의 언어든 문명국의 언어든 서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언어들의 특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언어의 그림’을 보다 객관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3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점]

- ① 문명국일수록 언어 체계도 우수하다.
- ② 언어는 인종이 세상을 대하는 사고 방식과 무관하다.
- ③ 외국어를 통해서 자국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 ④ 언어 간의 접촉을 통하여 언어 체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 ⑤ 언어 간의 대조를 통하여 언어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3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인용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나): 예시를 통하여 설명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다): 대조를 통하여 대상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라): 유추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마): 비유를 통하여 설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3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사건에 대한 화자의 목격 여부를 드러낸다.
- ② ㉠은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문법 범주이다.
- ③ ㉡을 통해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과 ㉡은 모두 문장에 형태적으로 표시된다.
- ⑤ ㉠보다 ㉡이 개별 언어의 고유성을 더 잘 드러낸다.

34. 위 글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과 상통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보 기>

ㄱ. 언어는 본능의 일종이지만, 문자 언어는 본능이 아니다. - 스티븐 핑커 -

ㄴ. 인간은 유한한 문법 장치로 무한한 문장들을 생성해 낼 수 있다. - 노암 촘스키 -

ㄷ. 어떠한 언어도 혼자만으로는 인간이 이루어 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다. - 에즈라 파운드 -

ㄹ. 세계는 여러 시각이 모인 모자이크이다. 언어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그 모자이크 한 조각을 잃는 것이다. - 아린 달리냐 로드리게스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누이트(에스키모) 하면 연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글루이다. 그들의 주거 시설에는 빙설을 이용한 집 외에도 목재나 가죽으로 만든 천막 등이 있다. 이글루라는 말은 이러한 주거 시설의 총칭이었으나, 눈으로 만든 집이 외지인의 시선을 끌 어 그것만 일컫는 말이 되었다. 이글루는 눈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반구 모양으로 쌓은 것이다. 눈 벽돌로 만든 집이 어떻게 얼음집으로 될까? 이글루에서는 어떻게 난방을 할까?

일단 눈 벽돌로 이글루를 만든 후에, 이글루 안에서 불을 피워 온도를 높인다. 온도가 올라가면 눈이 녹으면서 벽의 빈 틈을 메워 준다. 어느 정도 눈이 녹으면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눈 ㉠ 벽돌집을 얼음집으로 변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눈 사이에 들어 있던 공기는 빠져 나가지 못하고 얼음 속에 갇히게 된다. 이글루가 뿌옇게 보이는 것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기체에 부딪힌 빛의 산란 때문이다.

이글루 안은 밖보다 온도가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글루가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지면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태양 빛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른 이유로 일부 과학자들은 온실 효과를 든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의 단파이지만, 지구가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의 장파이다. 단파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지만, 복사파인 장파는 지구의 대기에 의해 흡수된다. 이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온실 유리가 복사파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글루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장파인 복사파가 얼음에 의해 차단되어 이글루 안이 따뜻한 것이다.

이글루 안이 추울 때 이누이트는 바닥에 물을 뿌린다.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다. 여름철 마당에 뿌린 물은 증발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것이지만, 이글루 바닥에 뿌린 물은 곧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 물의 물리적 변화 과정에서는 열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찬물보다 뜨거운 물을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바닥에 뿌려진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고 표면적이 넓어져서 증발이 빨리 일어나고 증발로 물의 양이 줄어들어 같은 양의 찬물보다 어느 온도까지 빨리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누이트가 융해와 응고, 복사, 기화 등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글루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눈으로 구조물을 만들었으며, 또한 물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였다. 이글루에는 극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오늘날 이글루라는 말은 의미가 축소되어 사용되고 있다.
- ② 태양 빛은 이글루의 실내 온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
- ③ 이누이트는 물의 화학적 변화를 난방에 이용하는 지혜를 지녔다.
- ④ 극지방의 지면과 이글루는 같은 면적에서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
- ⑤ 이글루의 얼음과 온실의 유리는 방출되는 복사파를 차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3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상반된 관점을 절충적으로 종합하고 있다.
- ② 과학적 근거를 들어 통념의 오류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 ④ 실험 결과로부터 특정한 원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구체적 현상에 들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밝히고 있다.

37. 위 글로 미루어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호수가 어느 날씨에도 바다는 왜 얼지 않는가?  
 ㄴ. 냉동실에서 얼린 얼음의 가운데 부분은 왜 뿌옇게 보이는가?  
 ㄷ. 겨울에 세차를 위해 자동차에 온수를 뿌리면 왜 바로 어는가?  
 ㄹ. 겨울에 실외에 놓은 음료수가 얼면서 병이 깨지는 것은 왜일까?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8. <보기>를 참조할 때, 단어의 구조가 ㉠과 다른 것은? [1점]

<보 기>

‘벽돌집’은 ‘재료 + 대상’의 의미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뜻이다.

- ① 두부콩                      ② 유리창                      ③ 보리밥
- ④ 비단옷                      ⑤ 밀짚모자

39.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글루의 건축 과정에서 ㉡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이글루 안에 피운 불
- ② 이글루 바닥에 뿌린 물
- ③ 얼음벽을 통과한 태양 빛
- ④ 불의 열에 의해 융해되는 눈
- ⑤ 이글루 안에서 발생한 복사파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10년 전에 금강산을 유람하여 한 달 동안 다니다가 돌아왔다. 바다는 출렁이고 산은 높이 솟아 그 광경은 무어라 말로 형용할 길이 없었다. 유람하는 이들은 줄지어 이어지고 안개와 구름은 무심하였다. 여기저기 신령스런 골짜기와 신비한 전각들, 이런 것들이 마침내 일대 장관으로 다가왔다. 구룡연·만물상·수미봉·옥경대 같은 여러 뛰어난 경치는 금강산에 서도 특히 이름난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기이하고 그윽한 언덕과 골짜기가 또 있어, 만일 이름을 붙여 널리 전파한다면 명승의 대열에 끼일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모두 ㉡거친 수풀과 우거진 넝쿨 사이에 가려지고 묻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생각하건대 사람 또한 이와 같다. 관각(館閣)\*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문화를 빛내고, 낭묘(廊廟)\*\*에서 예복을 입고 왕정(王政)을 보좌하여, 육경(六經)의 참뜻이 뭇 백성에게 파급되게 하는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여항의 사람이 이르러서는 기릴 만한 경술(經術)이나 공적은 없지만 ㉢그 언행에 혹 기록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 그 시문에 혹 전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도 모두 적막한 구석에서 초목처럼 시들어 없어지고 만다. 아아, 슬프도다! 내가 『호산외기(壺山外記)』를 지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친구인 겸산(兼山) 유재건(劉在建)이 나와 뜻이 통하여 여러 사람의 문집 속에서 더듬고 찾아서 이미 전(傳)에 오른 사람 약간 명을 얻었다. 그리고 ㉣전이 없는 사람은 겸산이 직접 전을 지었다. 그리하여 모두 280여 편이 된다. 정성스럽게 책을 만들어 제목을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이라 붙이고 나에게 서문을 요청하였다. 내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

나라 수천 리 안에 인물이 번성하니 언행이나 시문으로써 후세에 전할 만한 사람이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마는 인멸되어 아는 이가 없게 되었다. 겸산은 흥금이 바다 같아 남의 좋은 점을 즐거워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그물질하듯 끌어 모았다. 또한 그 언행이나 시문 외에도 한 가지 기예, 한 가지 재능이라도 있으면 모두 기록하였다. 그 부지런한 뜻이 어찌 헛되겠는가?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을 읽고 감동하고 분발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니, 어찌 다만 한 사람의 글에 그치겠는가? 세상의 교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이 뜻은 내가 명산(名山)에서 깨달아서 겸산의 글에 기록하여 두는 바이다. 아아! ㉥숨은 빛을 찾아내어 찬연히 세상에 나오게 하였도다.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석실(石室)에 보관한 역사 기록 이외에 태평한 시절 교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책에 있으리라.

- 조희룡, 「이향견문록 서(里鄉見聞錄序)」 -

\* 관각: 조선 시대에, 홍문관·예문관·규장각을 통틀어 이르던 말.  
\*\* 낭묘: 조정의 정무(政務)를 돌보던 궁전(宮殿).

40. 위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역사 기록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 ② 당대의 정치 이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저술의 교화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 ④ '겸산'의 인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여항 사람들의 행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41. ㉠~㉤ 중, 문맥상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4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수록되었을 인물의 심정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은?

<보 기>

『이향견문록』은 조선 후기 중인(中人)들의 전기를 모아서 엮은 책이다. 중인은 여항인(閩巷人)이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신분이 사대부보다 낮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포부를 지니고 있었고, 자신들의 재능에 대한 자긍심도 있었다.

- ① 반중(盤中) 조홍(早紅)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가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세 글로 설위하니이다
- ② 어리고 성긴 매화(梅花)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暗香)조차 부동(浮動)터라
- ③ 삼동(三冬)에 배웃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뿔도 편 적이 없건마는  
서산(西山)에 해 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 ④ 농암(龕巖)에 올라 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로다  
인사(人事)가 변한들 산천(山川)이야 변할까  
암전(巖前)에 모수 모구(某水某丘)가 어제 본 듯하여라
- ⑤ 형산(荊山)의 박옥(璞玉) 얻어 세상 사람 보이러 가니  
걸이 돌이니 속 알 이 뉘 있으리  
두어라 알 인들 없으랴 돌인 듯이 있거라

43. 위 글로 보아 '유재건'과 '나'의 관계를 뜻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지기지우(知己之友)                      ② 오월동주(吳越同舟)
- ③ 근묵자흑(近墨者黑)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⑤ 순망치한(唇亡齒寒)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한담과 최일귀 두 사람이 이때를 타서 천자에게 여쭙오되,  
“폐하 즉위하신 후에 은덕이 온 백성에게 미치고 위엄이 온 세상에 진동하여 열국 제신이 다 조공을 바치되, 오직 토변과 가달이 강포함만 믿고 천명을 거스르니, 신 등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남적을 항복 받아 충신으로 돌아오면 폐하의 위엄이 남방에 가득하고 소신의 공명은 후세에 전하리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천자 매일 남적이 강성함을 근심하더니, 이 말을 듣고 대회 왈,

“경의 마음대로 기병하라.”

하시니라.

이때 유 주부 조회하고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 천자 앞에 들어가 엎드려 주왈,

“듣사오니 폐하께옵서 남적을 치라 하시기로 기병하신단 말씀이 옳으니이까?”

천자 왈,

“한담의 말이 여차여차하기로 그런 일이 있노라.”

주부 여쭙오되,

“폐하, 어찌 망령되게 허락하였습니까? 왕실은 미약하고 외적은 강성하니, 이는 자는 범을 찌름과 같고 드는 토끼를 놓침이라. 한낱 새알이 천 근의 무게를 견디리까? 가련한 백성 목숨 백 리 사장(沙場) 외로운 혼이 되면 그것인들 아니 적악(積惡)이리오.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기병치 마옵소서.”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차에, 한담과 일귀 일시에 합주하되,

“유심의 말을 듣사오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니, 오국 간신과 같은 무리로소이다. 대국을 저버리고 도적놈만 칭찬하여 개미 무리를 대국에 비하고 한낱 새알을 폐하에게 비하니, 일대의 간신이요 만고의 역적이라. 신 등은 저어하건대 유심의 말이 가달을 못 치게 하니 가달과 동심하여 내용이 된 듯하니 유심의 목을 먼저 베고 가달을 치사이다.”

천자가 허락하니,

한림 학사 왕공렬이 유심 죽인단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왈,

“주부 유심은 선황제 개국 공신 유기의 자손이라. 위인이 정직하고 일심이 충직하오니 남적을 치지 말자는 말이 사리에 당연하옵거늘, 그 말을 죄라 하와 충신을 죽이시면 태조 황제 사당 안에 유 상공을 배향하였으니 춘추로 제사 지낼 때에 무슨 면목으로 뵈오며, 유심을 죽이면 직간할 신하 없사울 것이니, 황상은 생각하와 죄를 용서하옵소서.”

천자 이 말 듣고 한담을 돌아보니, 한담이 여쭙오되,

“유심을 죄하실진대 만 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나 공신의 후에이오니, 죄목대로 다 못하오나 정배나 하사이다.”

천자

“올다.”

하시고,

“황성 밖에 멀리 유배 보내라.”

[중간 줄거리]

유심이 유배된 후, 아들 유충렬은 정한담의 박해로 고난을 겪다가 영웅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한담이 황제를 내쫓고 도성을 차지하자, 유충렬은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고 대원수가 된다. 유충렬이 도성을 비운 사이, 천자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나) 이때 대원수가 금산성에서 적 십만 병을 한칼에 무찌르고 바로 호산대에 득달하여 적병을 씨 없이 함몰코자 행하더니, 뜻밖에 월색이 희미하며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 얼굴에 내리거늘, 원수 괴이히 여겨 말을 잠깐 머무르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紫微星)이 떨어져 번수 가에 비쳤거늘, 크게 놀라 말을 구르며 왈,  
“이게 웬 변이나?”

갑옷과 투구, 창검을 갖추고 천사마 위에 바삐 올라 산호채적을 높이 들어 채질하며 말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왈,

“천사마야, 너의 용맹 두었다가 이런 때에 아니 쓰고 어디 쓰리오. 지금 천자 도적에게 잡히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지라. 순식간에 득달하여 천자를 구원하라.”

천사마는 본디 천상에서 타고 온 비룡이라. 채질을 아니하고 단단히 부탁하여 말해도, 비룡의 조화라 세 가는 대로 두어도 순식간에 몇 천 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세 입자 급한 말로 부탁하고 산호채로 채질하니, 어찌 아니 급히 갈까. 눈 한 번 깜짝이며 황성 밖을 일른 지나 번수 가에 다다르니,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어지고 한담은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 하거늘, 원수 이때를 당하매 평생에 있는 기력과 일생에 지를 호통을 힘을 다해 지르고, 천사마도 평생 용맹을 이때에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삼십삼천 어린 조화 이때에 다 부리니, 원수 달는 앞에 귀신인들 아니 울며,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도 뒤엎는 듯 혼백인들 아니 울리오. 온몸이 불빛 되어 벽력같이 소리하며 왈,

“이놈 정한담아, 우리 천자를 해치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하는 소리에 나는 짐승도 떨어지고 강신 하백(江神河伯)도 닢을 잃어 용납지 못하거늘, 정한담의 혼백인들 아니 가며 간담인들 성할소냐. 호통 소리 지나는 곳에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먹먹하여 땀던 말 둘러 타고 도망하여 가려다가, 형산마 거꾸러져 백사장에 떨어지니 창검을 갈라 들고 원수를 겨누거늘, 구만 청천 구름 속에 번개칼이 번쩍 하며 한담의 장창 대검이 부서지니, 원수 달려들어 한담의 목을 산 채로 잡아들고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엎드리니, 이때 천자 백사장에 엎어져서 반생반사 기절하여 누워 있거늘, 원수 붙잡아 앉히고 정신을 진정한 후에 엎드려 주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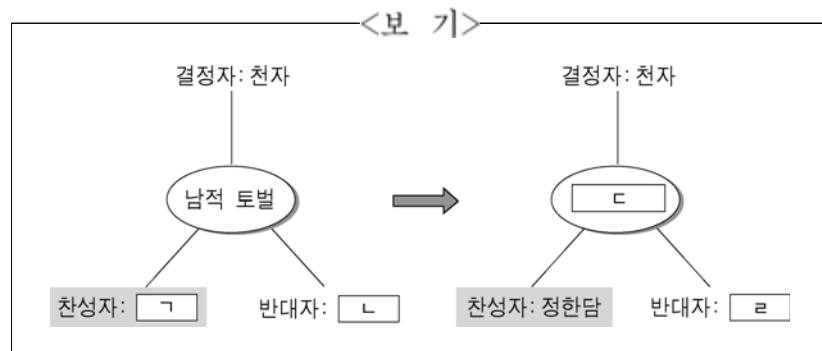
“소장이 도적을 함몰하고 한담을 사로잡아 말에 달고 왔나이다.”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48. (가)와 (나)를 대비할 때,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가)	(나)
① 사건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② 사건이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배경이 되는 공간이 고정되어 있다.	배경이 되는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⑤ 주로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주로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을 드러낸다.

49. (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ㄱ~ㄴ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① 유심  | 정한담 | 유심 처벌 | 왕공렬 |
| ② 유심  | 정한담 | 사당 참배 | 최일귀 |
| ③ 정한담 | 유심  | 유심 처벌 | 왕공렬 |
| ④ 정한담 | 유심  | 사당 참배 | 왕공렬 |
| ⑤ 정한담 | 유심  | 조공 징수 | 최일귀 |

50.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삽화를 그리려고 한다. <보기>에서 (나)의 내용을 잘 반영한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유충렬이 천기를 살펴보는 호산대의 배경을 밝고 명량한 분위기로 표현하여 앞으로의 승리를 예감할 수 있도록 한다.

ㄴ. 쓰러져 있는 천자에게서 무력함 또는 나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ㄷ. 정한담을 향해 달려가는 천사마는 역동적이면서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그린다.

ㄹ. 장성검을 들고 진격하는 유충렬의 모습에서 천자를 구하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이도록 한다.

ㅁ. 달려오는 유충렬을 보고 도망가는 정한담의 표정에서 여유와 의연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린다.

- |           |           |           |
|-----------|-----------|-----------|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           |

51. (가)를 고려할 때, (나)의 '천자'의 처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1점]

- 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군.
- ② 목마른 놈이 샘 판다더니.
- ③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 ④ 되로 주고 말로 받았군.
- ⑤ 그 나물에 그 밥이네.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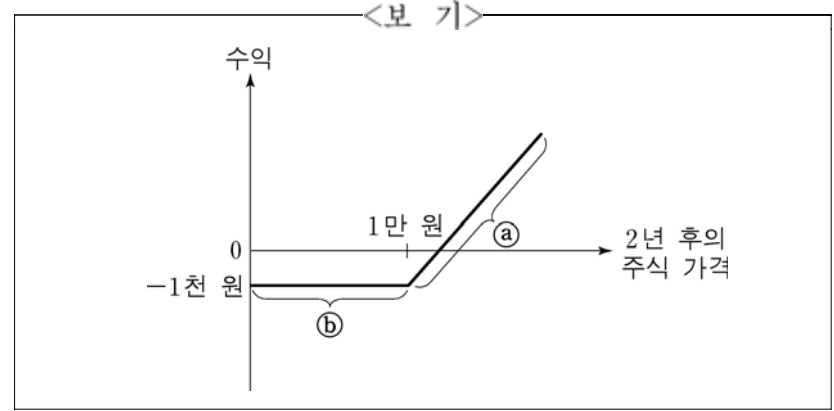
5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주식 옵션은 매매될 수 없다.
- ② 옵션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 ③ 옵션의 행사 가격은 행사 시기에 가서 정해진다.
- ④ 주식 이외의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은 없다.
- ⑤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을 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이득이다.

53.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압착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 ② 압착기를 빌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 ③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 ④ 압착기 임대 계약금을 돌려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 ⑤ 압착기의 임대료가 계약한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54.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 준다.
- ② b는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손실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③ b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구입한 주식 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 ④ b가 세로축의 0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⑤ a와 b의 모양이 다른 것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55. ㉠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경영자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도록
- ② 경영자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추구하도록
- ③ 경영자가 덜 위험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 ④ 경영자가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도록
- ⑤ 경영자가 사회 공익을 추구하도록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광복 직후,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사회 모두에 환멸을 느낀다.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된 명준은 석방 과정에서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하고, 배를 타고 제삼국으로 떠난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빈 데를 메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얼마를 그러고 있다가 또 뱃간으로 돌아온다. 방은 아까 처럼 비어 있다.

자기 자리로 올라간다. 자려고 해서가 아니다. 그저 찾는 것도 없이, 머리맡을 어물어물 더듬는다. 손에 딱딱한 물건이 잡힌다. 부채다. 문간에서 기척이 난다.

얼른 돌아다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는 않는다.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에 새삼스레 그의 주의를 끌 만한 것은 없다.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 조각을 한곳에 모으고, 짝 밍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 있게 밍

는다. 그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올려 밀 뿐, 우리는 바스러질 대로 바스러진 모양인지, 꿈쩍도 않는다. ㉠ 북도로 나선다. 북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흥가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본다. 이 배가 밧아 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 잡고, 해도 위를 재 보는 시늉을 한다. 한참 장난을 하다가 컴퍼스를 던져 버린다. 그때 여태까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다.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힌 대로, 들고 온 것이다. 의자에 걸터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트르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벌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 온다.

.....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좁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애에게 말하고 있다. 윤애 날 믿어 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호스\* 숙소의 창에서 ㉢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함께 있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 사복\*\* 자리에서 있다. ㉤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쭉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

㉥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질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썩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킨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 최인훈, 「광장」 -

\* 콜호스: 구소련의 집단 농장.

\*\* 사복: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의 아랫머리나 가위다리의 교차된 곳에 박아 돌쩌귀처럼 쓰이는 물건.

\*\*\* 마스트: 돛대.

5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ㄱ. 풍자적 어조를 통해 이야기의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ㄴ.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ㄷ.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ㄹ.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7. 위 글의 '사복 자리', '삶의 광장', '푸른 광장'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펼쳐진 부채에 비유된 '삶의 광장'은 점점 좁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군.
- ② '사복 자리'는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로 표현될 만큼 삶의 위기감이 고조된 공간이군.
- ③ '사복 자리'에서, 주인공은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군.
- ④ '사복 자리'에서, 주인공은 '삶의 광장'에서 '푸른 광장'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있군.
- ⑤ 주인공은 '무덤 속에서 몸을 쭉 한 여자'와 '딸'을 '푸른 광장'에 연결 짓고 있군.

5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필요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문학 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시켜 해석할 때 드러나는 의미를 상황의 구체적 의미라 한다. 이것은 그 작품을 낳게 한 계기이기도 하며, 또 그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핵심적인 고민과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구체적 상황의 의미로부터 특정한 시대와 장소를 넘어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회적·문화적 상황의 보편적 의미라 한다. 몇백 년 전의 작품의 가치를 오늘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보편적 의미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 ① 이명준이 활동한 공간적 배경이 된 곳을 실제로 답사하여 현장 체험을 한다.
- ② 이명준이 은혜와 함께 있던 동굴이 우리 신화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본다.
- ③ 이명준의 삶과 사랑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 ④ 이명준의 성격과 행동을 분석하고 종합한 후, 그것을 중심으로 이명준의 일대기를 작성해 본다.
- ⑤ 이명준이 겪은 사건을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상황 및 그 시기에 작가가 지녔던 가치관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알아본다.

5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의 행동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여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이어질 내용에서 그림의 소재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됨을 미리 알려 준다.
- ③ ㉢: 상념에서 현실 세계로 의식이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원했던 자신에 대한 뉘우침이 드러난다.
- ⑤ ㉤: 경쾌하게 날고 있는 새의 모습에 주인공의 심리를 투영하고 있다.

60. ㉠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유사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불-타다 1. 불이 붙어서 타다. ¶ 화재로 집이 불타다.  
 2. (비유적으로) 매우 붉은빛으로 빛나다. ¶ 불타는 노을.

- ① 오늘 한창 물오른 싱싱한 생선이 나왔다.
- ② 어린 동생은 자기의 나이를 손꼽아 세었다.
- ③ 분홍색 매꽃이 군데군데 두렁을 수놓고 있다.
- ④ 바람 소리도 잠들고 짐승들 울음소리마저 사라졌다.
- ⑤ 오월의 신록을 살찌게 하는 비가 부슬거리고 있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